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7일(목) 16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10. 7(목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상품과
담당과장	안창용 과장(044-203-5790)	담당자	김태현 사무관(044-203-5795)

산업부,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(CPTPP*) 관련 주요 제조업계 간담회 개최

*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-Pacific Partnership

- 아태지역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기민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 -

□ 산업부 **전윤종 통상교섭실장**은 10.7(목) 오후 CPTPP 관련 주요 제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으로 급변하고 있는 아·태 지역의 통상환경을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,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

< CPTPP 주요 제조업계 간담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: '21.10.7(목) 17:20 / 대한상공회의소 1층 Executive conference 룸
- **참석자**: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(주재), 대한상공회의소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, 한국철강협회, 한국기계산업진흥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대한화장품협회
- **논의내용**: CPTPP 등 아·태지역 통상환경 점검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논의

□ 전윤종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 "그간 우리 정부는 **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내외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**해 왔다"고 밝히고,

○ "지금은 중국과 대만의 전격 가입 신청으로 CPTPP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으로, 우리 제조업의 공급망 고도화와 아·태 지역 통상질서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**우리도 CPTPP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**가 있다"고 언급함

□ 참석한 업계는 CPTPP 가입은 **멕시코와의 신규 FTA** 체결 효과 외에도 베트남, 말레이시아와 같은 **신남방 시장 확대**를 통해 우리 제조업계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며, 향후 진행 과정에서 **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요청**함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주요 제조업계 간담회에 이어 10.14(목)에 반도체, 바이오, 디지털 업계 등 신산업 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**지속적으로 의견 청취를 확대**해 나가며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 김태현 사무관(☎044-203-57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